

을 송년회는 음악에 취해볼까



아이유

광주 12월 콘서트 풍년

- 5일 이승환 전국투어 광주서 스타트
- 13일 아이유 '제제' '좋은 날' 들고
- 이미자·임재범·이승철...줄줄이 공연
- 31일 임형주 팝페라로 한 해 마무리



임형주

'문화 송년회 어때요.' 12월이다. 각종 모임에서 망년회를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공연 등을 관람하는 문화 송년회가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 맞춰 다양한 콘서트들이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가수 콘서트가 강세다. 12월 한달 동안만 10개가 넘는 콘서트가 예정돼 있으며 같은 날 맞는 공연들도 많다.

12월 공연의 시작은 이승환이다. '공연의 신'으로 불리는 이승환은 '차카게 실자', '클럽 투어 18+6'를 비롯해 6시간 21분 동안 66곡을 부른 '빠데이 26년' 등 다양한 공연을 펼치고 있다. 5일 영주체육관에서 열리는 이번 콘서트의 타이틀은 '공연의 기원 ORIGIN'이다. 광주를 시작으로 전국 투어를 진행한다. '엘리지의 여왕' 이미자 콘서트는 부모님께 선물하기 좋은 공연이다. 6일 광주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공연이 열리는 '섬마을 선생님' 등 다양한 곡을 만날 수 있다.

또 '발라드 황태자' 신승훈의 '더 신승훈 쇼'(11~12일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도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아름다운 화음이 매력적인 '브라운아이즈소울'(나일·정엽·성훈·영준)은 12일 영주체육관 공연을 시작으로 전국 투어에 돌입한다. 'SOUL 4 REAL'

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는 새롭게 발매되는 정규 4집 수록곡도 만날 수 있다.

같은 날 김대중센터 다목적홀에서는 '콜요태 콘서트'가 열린다. 인기 그룹 '쿨'의 이지훈과 김성수, '코요태'의 김중민, 신지, 뽕가가 함께하는 무대다.

최근 직접 프로듀싱한 앨범으로 인기를 모은 '국민 여동생' 아이유 콘서트는 13일 김대중 컨벤션센터 다목적 홀에서 열린다. '새 신발', '제제', '스물셋' 등 새 앨범 'CHAT-SHIRE' 수록곡과 '너랑 나', '너의 의미', '좋은 날' 등 히트곡을 만날 수 있다.

1906년에 창단한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은 오는 16일 광주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공연을 갖는다. 모차르트의 '자장가', 카치니의 '아베 마리아' 등 클래식 명곡과 '넬라 판타지아',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등을 선사한다.

19일 영주체육관에서 열리는 '이승철 더 베스트 라이브(The Best Live)' 공연은 최고의 히트곡 26곡을 선보이는 자리다.

크리스마스 즈음에는 임재범 콘서트(24일 영주체육관)가 대가중이다. 최근 인기 프로그램 '히든 싱어'에 출연, 화제를 모은 임재범의 이번 공연은 데뷔 30주년을 기념하는 무대로 '너를 위해', '고해', '사랑보다 깊은 상처' 등 히트곡을 들려준다.

흥겨운 '리쌍 콘서트'(24~25일 김대중 컨벤션센터

다목적홀)도 기대가 높다. 길과 개리 두 사람은 '2015리쌍극장 시즌 3'으로 관객들을 만나며 리쌍의 곡에 피쳐링으로 참여한 정인도 함께한다.

마지막날인 31일에는 4개의 공연이 맞붙는다.

MBC 예능프로그램 '일밤-북면가왕'에서 '화성방 클레오파트라'라는 이름으로 가왕에 올랐던 김연우는 영주체육관에서 '신이라 불리는 사나이' 공연을 연다.

가수 박진영은 '2015 박진영 나쁜파티 STRIP'(광주여대 체육관)을 진행한다. '나쁜파티'는 2007년 론칭된 브랜드 공연으로 박진영 특유의 화끈한 19금 무대가 마련된다.

그밖에 케이윌도 같은 날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캐대박 콘서트'를 갖는다.

'아름다운 미성'으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전하고 있는 팝페라 테너 임형주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31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회관에서 관객들을 만난다.

푸치니의 오페라 '토스카' 중 '별은 빛나건만', 베르디의 '라 트라비아타' 중 '축배의 노래' 등 정통 클래식과 '오페라의 유령'의 '서곡', 'All I ask of you', '지킬 앤 하이드'의 'This is moment' 등 뮤지컬 넘버를 만날 수 있다.

협연은 코리아 내셔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맡는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화순 출신 박용수 두번째 수필집 발간

'사팔뜨기의 사랑'...30여편 수록

수필은 허구의 이야기를 서사화하는 소설이나 감성을 리드미컬하게 형상화하는 시와 달리 삶에 근거한 진실을 담아내는 장르다. 수필의 소재가 대부분 자연과 인간의 일상이 주류를 이루는 이유다.

화순 출신 박용수 수필가가 두번째 수필집 '사팔뜨기의 사랑'(시와사람)을 발간했다. 제목에 갖는 '사랑'이 환기하는 것은 아픔과 추억, 애나지다. 저자에게 '사랑'은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자,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다. 작품집에는 '중장타에 들다', '밤을 걷는 시간', '취일몽', '왜 무등산에 오르는가', '이비행기' 등 모두 30편의 작품이 수록돼 있다.

쟁기, 리어카, 나무, 은어, 막걸리, 징검다리, 토담 등 남도의 자연물로 치환된 소재는 작가의 꿈과 사랑이 투영돼 있다. 또한 자



연과 사물의 기저에는 가족과 자연에 대한 무한한 사랑, 그리고 일상에 대한 관조의식이 흐른다.

해설을 쓴 정태현 수필가는 "그의 문학적 시선은 이제 밖에서 맴돌다가 안으로 차츰 스며든다. 소재를 바라보는 자기만의 렌즈를 지니며, 화순의 나열로 끝나지 않고 의미화하고 해석한다"고 평한다.

한편 화순 출신 박 수필가는 2004년 전남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으며 광주 동신여고 교사로 재직 중이다. 수필집 '꿈꾸는 와불'을 펴냈다. /박성천기자 skzspk@kwangju.co.kr

춤으로 풀어낸 사랑 이야기

광주무용협회 6일 빛고을시민문화관...무용인 시상식도

'젊은 무용수들이 그려내는 다채로운 사랑 이야기' 광주무용협회(회장 김미숙)가 주최하는 '2015 젊은 무용가 초청 공연'이 오는 6일 오후 7시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린다.

이번 무대는 앞으로 광주 무용계의 미래를 이끌어 갈 젊은 무용가들의 참신한 작품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다.

공연 주제는 '사랑'이다. 현대무용, 발레, 댄스 스포츠 등 각 장르의 무용수들은 두명씩 짝을 이뤄 사랑에 대해 이야기한다.

발레 '로미오와 줄리엣'(공유민·이기행), 한국전통무용 '사랑가'(배정화·권오홍), 현대무용 '지젤'(홍동리·김희준), 댄스 스포츠 'Make You Feel My Love'(이일권·곽미리), 발레 '르 코르세르 중' 2인무(김민석·오지은), 한국창작무용 'The one'(배강원·오유



김옥희

이숙영

진), 현대무용 'Happy End-The Winter's Tale'(김미선·박주상) 등을 만날 수 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2015 무용인 시상식도 함께 열린다. 박금자상은 김옥희(전 광주 예고 교사)씨가, 광주무용인상은 이숙영(목포과학대 교수)씨가 받는다. 또 신인상과 연기상은 올해 전국무용제에서 금상을 수상한 현대무용단 채운화씨와 김현재씨가 받는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신경숙 남편 남진우 교수 "표절 논란 안이한 대처" 첫 사과

"문학 매체에서 일정한 역할을 맡아온 사람의 하나로서, 주위의 모든 분들께, 그들의 기대만큼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리고 싶다. 신경숙을 비롯해 여러 작가의 표절 혐의에 대해 무시하거나 안이하게 대처한 것은 해당 작가를 위해서나 전혀 적절한 대응이 아니었다."

소설가 신경숙의 남편이자 시인 겸 문학평론가인 남진우 명지대 문예창작과 교수가 부인의 표절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남 교수는 부인의 표절 논란 전 '표절 킬러'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다른 문인의 표절 문제를 신랄하게 다뤘었다.

남 교수는 월간 '현대시학' 권두시론에 '표

절의 제국-회상, 혹은 표절과 문학권력에 대한 단상'이라는 글을 기고했다.

그는 기고문에서 1992년 시작된 이인화의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의 표절 논란을 언급하며 당시 문인들과 문학공동체가 표절 사태에 대응하는 과정을 담담하게 읊었다.

그는 "이번 표절 사태를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해나가는가에 한국문학의 미래가 걸려 있다고 여겨질 정도다. 진화의 도상에 있는 한국문학에 이 사태가 재앙만이 아닌 새로운 반전의 계기가 될 수도도록 우리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라고 마무리했다. /연합뉴스



이승환



이승철



임재범



이미자

법률경매 (추천 특급)

〈8층 상가건물 첨단지구〉

북구 오룡동 (근린상가주택, 연구시설)
(첨단지구 삼성전자 정문 앞)
(토 500평, 건 904평)

1층 (상가) - 130평
2층~7층 (오피스텔 룸 56개)
(15평, 고급형오피스텔)
8층 (사무실, 주택)

(매가 → 35억)
임대예상 수익 → 보 3억, 월 3,000만
분할등기시 대출 25억 가능!! (실투자금 제로)
(향후 60억 가치 있음)

감정가 35억4천 → 최저가 24억8천

010-6834-4800 / 010-6832-9700

근린상가 오피스텔 (소액투자)

〈매월 월세로 연금대비 하세요!〉

- ① 상무지구 정연오피 3층(30평) 한국은행앞 (용5천) (보1천, 월70만) → 매가 1억3천만
- ②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19평) 롯데마트 앞 상무나이트점 (용4천)(보5백, 월42만) → 매가 8천만
- ③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23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점 (용5천)(보1천, 월50만) → 매가 8천5백만
- ④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13평)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점 (용2천)(보3백, 월33만) → 매가 5천만
- ⑤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 6층(45평) 울수리 (용5천)(보1천월60만) → 매가 1억1천만
- ⑥ 서구 쌍촌동 대운파크 2층(11평) 운천역1번출구 3분 (용2천)(보2백, 월32만) → 매가 3천8백만
- ⑦ 광산구 첨단지구 월계동 상가층(40평) (보8백, 월80만)(용4천) → 매가 1억5천만
- ⑧ 광양 광영동 상아A.P.T 12층(15평) 상가밀집지역,아파트단지 (보2백, 월25만) → 매가 3천5백만
- ⑨ 북구 중흥동 전대 정문/후문 2분거리 (상가원룸) 1층 (상가12칸) 2층~3층 (원룸6개, 투룸2개) 4층 (주택) (보4천, 월520만) → 매가 6억8천만
- ⑩ 북구 우산동 7층상가건물매매 (사우나 건물) (보1억2천, 월1,020만) → 매가 17억

010-7384-7800

상가 임대 (상무지구)

- ① 상무지구 (5층) / 90평
상무지구 가장 저렴한 사무실
금용가도로 이면코너
(올 시설 완비, 즉시 입주 가능)
- 주차 2대 무료 / 학원, 보험사, 사무실, 기타
- 보증금 2,000만 / 월 130만
- ② 법원앞 (1층) 사무실 임대 / 22평
(즉시입주가능, 울리모델링 완비)
버스, 택시승강장 앞 (위치 최고)
- 보증금 2,000만 / 월 80만

010-6670-9800